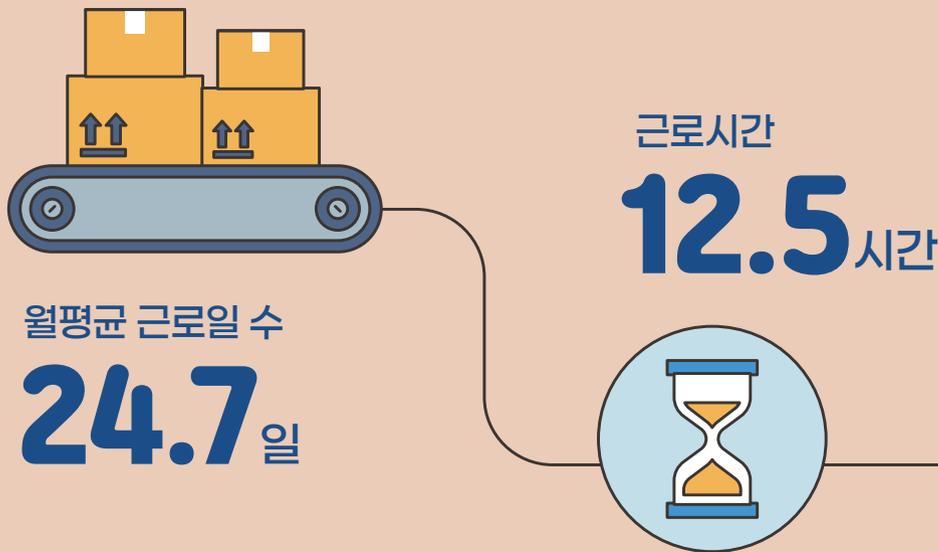


# PARCEL

## 택배 노동자 과로사 급증

택배 노동자의 사망 건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4배 이상 폭증했다.

10명 중 7명이 뇌혈관 및 심장 질환 등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24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'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'에 따르면, 2017~2019년 택배업 사망재해는 8건이었으나 동기간인 2020~2022년 사망재해는 33건에 달해 4배 이상 증가했다.



출처 통계청, 국토교통부 '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', 2020년 기준

###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

출처 근로복지공단, 김주영 의원실 (단위: 건)

구분	2017		2018		2019		2020		2021		2022		2023		2024. 8.		승인 총계
	승인	불승인															
사고사망	-	-	1	-	1	-	3	-	-	1	7	1	3	-	1	-	16
질병사망	3	-	2	-	1	-	9	1	10	2	4	-	8	3	4	-	41
계	3	-	3	-	2	-	12	1	10	3	11	1	11	3	4	-	5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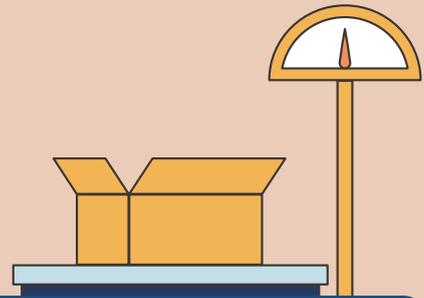
\* (작성기준)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(최초) 1회차 처리일 기준

\* (택배업) 산재보험 사업종류 '택배업'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 작성

\*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'산업재해' 통계(통계청 승인 통계)와 다를 수 있음



국내 택배기사 수  
**428,000명**



**2017년 이후 택배업 질병종류별 사망재해 현황**

출처 근로복지공단, 김주영 의원실, 2017~2024. 8.

작업 관련성 질병



뇌혈관 질환  
**12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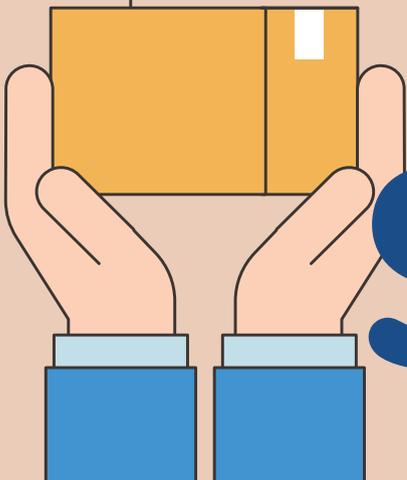


심장 질환  
**27건**



기타  
**2건**

\* (작성기준)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(최초) 1회차 처리일 기준 / 직업병명 대분류 기준  
 \* (택배업) 산재보험 사업종류 '택배업'에 해당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통계 작성



**SERVICE**